

“올바른 신앙고백의 중요성”

요한복음 11장 17-2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부모님은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고 또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은 이들이 사는 베다니에 계시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 가셨습니다.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의 위급함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금방 오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죽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를 다 지낸 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무덤에 가서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 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엮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의사나 약에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생명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는 것이 모든 것이 끝장 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너머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겐 죽음이 없습니다.

(요 11: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 11: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너무나도 축복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막연한 추측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오직 주님 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의 삶이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후의 삶이 더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과 의 대화 (마 22:32)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믿는 자’ 라고 하셨는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살든 못살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들 수 있다.

(요 11: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집의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 병도 들지 않고 어려움도 생기지 않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시는 사람도 중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정이라고 해도 병이나 사고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다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의 신앙에 대해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신앙이 영터리 신앙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의심을 불어넣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의 환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다.

(요 11: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병이 걸렸으면 큰일 났다고 해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지체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프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오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안 죽고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병이나 환란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약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란 혹은 유혹으로 번역됩니다. 여기서는 여러가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혹은 신앙적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란을 온전히 기뻐하라고 합니다. 물론 환란을 기다렸다가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 치고 환란을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 자체는 싫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특히 그리할 때 많은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으로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정금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불행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우연을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나 불행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환경이 실체가 아니라 예수가 실체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입술의 신앙고백을 듣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다. 어떤 환경에도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요 11: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여! 나흘 전에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서는 깊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와 계시는데 여기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시고 나흘 전에 이곳에 왔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르다의 생각 속에는 이미 죽은 오라버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손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손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 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님께서 역사 하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마르다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나흘 전에 예수님. 과거의 예수님이지 현재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현재 마르다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은 마르다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고백은 과거의 예수를 인정하고 현재의 예수는 무시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무시당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서 기적을 행할 수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룰을 얼마나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주의 종들이 그리고 신앙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기적의 신은 지나갔다. 예수님께서서는 2000 년 전에는 기적을 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마르다와 같이 나흘전의 예수님은 인정하나 오늘의 예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일점 일획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 장 8 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너희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볼지어다. 세상 끝 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땅과 하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는 어제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여러분과 내 가운데서 지금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죄를 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귀신에서 놓여 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서는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주와 가난과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출하사 천국에 보내시려고 기다리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역시 나흘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이천 년 전에 예수님이었더라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신앙고백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나는 크고 작은 나사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과 가정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왔지만 우리 신앙고백은 나흘 전의

신앙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고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환경은 허상입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렘 29:11)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들도 병들 수도 있고 환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롬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시고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인간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 마다 간음한 자라고 하셨으며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고 말했습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면 인격과 운명과 환경도 그렇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다운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생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 절망속에서 헤매이는 자신의 모습 저주 받은 자신의 모습을 늘 상상하는 사람은 결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마음판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지고 다음달은 이번달보다 나아지며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지는 것을 늘 꿈꾸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나눔의 시간

1. 그리스도인은 죽음후에 어떻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확신하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2. 예수 잘 믿는데도 병들고 고난 당한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겼는지 나누기 바랍니다.
3. 환경이 어려울 때 입술의 신앙고백의 중요성을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 바랍니다.